





"10년 호황 끝나가 … 경기하강 대비해야"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째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세계 경기 위축을 심 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제이컵 루 전 미국 재무부 이날 서울에서 '제10회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GFC)'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 사이클을 볼 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비서실장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4년간 재무부를 이끌 었다.

루 전 장관은 "호황이 당장 끝날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정부는 위기의 신호를 찾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갈등의 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루 전 장관에 이어 발표에 나선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도 "미·중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가능 성이 크다." 며 "최악의 경우 자유무역체제가 무너질 우 러도 있다." 고 말했다. 야오양 중국 베이징대 국가발전 연구원장은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 칠 것" 이라며 "한국 수출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 성이 있다." 고 경고했다.

루 전 장관은 경기가 좋을 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거꾸로 호황기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정작경기 침체 때 쓸 실탄이 없다." 며 "재정적자가 미국발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투전 장관의 예측이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가 연 3%에 도달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품공장 화재로 자동차 생산 차질

지난 2일 미시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포드와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 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시간주 이튼래피즈의 머리디언 매그니지엄 프로덕츠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포드는 인기 차종인 F150 픽업트럭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국 기업 완평이 인수한 이 공장은 차량 용 라디에이터 지지대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왔다. 현지 소방 관계자는 공장의 4분의 3이 피해를 입 었다고 밝혔다.

포드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공장에서 F150 차종 생

\$1,188,000

\$830,000

산을 중단한 상태며 미시간주 디어본 공장도 수일내 가동이 중단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포드의 오하이오와 켄터키주 공장에서도 대형픽업트럭인 슈퍼듀티 조립을 하지 못하고 SUV와 승합차만 생산하고 있다.

미시간 부품 공장 화재로 포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빅3'인 제너럴모터스(GM)과 피아트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벤츠, BMW도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서 스포 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중단했다. 터스컬루사 공장에서는 벤츠 차종 중 GLE, GLS와 GLE쿠페 SUV와 C클래스를 생산해왔다. 피아트크라이슬러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퍼시피카 미니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미주리주 웬츠빌 공장에서는 승합차 조립이중단됐다.

국제유가 급등 중동 위기 때문

이란발 중동 위기가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급상 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가가 조만간 80달 러(브렌트유 기준)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40달러 선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1년 새 30달러 이상 올 랐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은 공급 측면에서 인플 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 요 인으로 작용하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어 주 목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는 다시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강 달러로 인해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상승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 이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발 중동 위기가 부각되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란을 둘러싼 열강들의 줄다리기는 미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경제 개혁 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감산 기조를 유지해국제유가를 브렌트유 기준 80달러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리아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도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도 유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정유회사 발레로에너지는 최근 "수요를 해치지 않는 선에 서 유가가 최소 80달러, 최대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Term: 3-5 Years



\$788,000